

寺刹佛殿의 全間開放 창호 形式變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ypes of Windows and Doors with Full-Openable Bay size in Korean Buddhist Temples

곽 동 엽*
Kwak, Dong Yeob
조 영 화**
Cho, Young Wha

Abstract

A transitional trend of architectural elements which would happen naturally in a building may be a cue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of types of windows and doors with the full-openable bay size in Korean Buddhist Temples and search for the transitional process on types of windows and door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could be obtained.

1. The type of bunhap(connected door frame)Deul E-Yul-Gae doors + Deul E-Yul-Gae(lift up) single windows would be changed from windows of a bay just beside a middle bay into Bunhap(connected door frame)Deul E-Yul-Gae doors, and be undergone on the transition that the whole would be altered into the same type.

2. The type of Bunhap(connected door frame)Deul E-Yul-Gae doors + Bunhap(connected door frame) Deul E-Yul-Gae doors would be changed into Bunhap swinging doors that the whole of windows and doors could be opened very easily.

3. The type of Bunhap swinging doors + Bunhap swinging doors would be seen in the transition that windows and doors would be altered separately due to the exchange from windows and doors of one of a middle bay or a bay just beside a middle bay to swinging doors and etc

* 정회원.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정회원.대경전문대학 건축과 조교수

I. 序 論

窓戶는 건축물 내부환경의 質을 결정하는 主된 요소로서, 건축공간별 기능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크기와 형태 및 개폐방법 등이 결정되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에서는 內·外部 공간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空間間的 有機的인 통합과 분리를 위해서 건축물의 造營당시부터 창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주택이나 寺刹의 主佛殿 그리고 향교의 명륜당 및 서원 강당 등의 방과 마루, 마루와 마당과의 사이에 필요시 空間을 개방할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되는 예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요에 따라 창호를 여닫기만 하면 인접한 空間間的 통합과 분리가 쉽게 연출될 수 있다.

傳統建築物에 설치된 이러한 空間開放 구조의 창호는 들어열개 獨窓 그리고 분합들문과 분합 여닫이문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의 간살이 작은 경우에는 兩開門으로 空間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들어열개 독창은 닫아두었을 경우 출입이 어려워 門보다는 窓의 기능이 강한 반면 분합들문이나 분합 여닫이문 그리고 兩開門은 창문의 기능과 문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개폐방법의 차이일 뿐 건물柱間 전체를 개방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설치된 이들의 예를 살펴보면, 동일한 건물에서 어간이나 협간 등 위치별로 개폐의 방법이 서로 다른 창호들을 설치하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 고쳐 전체창호의 개폐방법을 동일하게 한다거나, 혹은 모든 창호가 같은 개폐방법임에도 以前의 창호와 개폐방법만 다르게 전체창호를 改替한 흔적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이들이 空間을 개방할 수 있는 동일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개폐방법만을

바꾸어 개체되어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창호형식의 한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만약 이들을 추적하여 분석한다면 空間開放 창호의 변천흐름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건축물 건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編年指標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主佛殿을 대상으로 하여 空間開放形 창호의 改變흔적을 찾아내고 이들을 復元¹⁾한 다음 復元前과 後의 형식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들의 改變樣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찰의 주불전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이곳이 사찰의 주된 儀禮와 儀式이 집전되는 곳으로서 앞마당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거의 모두 정면에 空間開放구조의 창호가 설치되어 연구에 대한 보편성을 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文化財로 지정된 불전중에서 창호에 개변흔적이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를 위해 100여개에 이르는 사찰²⁾을 직접 답사한 결과 개변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찰은 총 17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II. 空間開放形 창호의 분류고찰

空間開放 구조의 창호는 쌍여닫이나 외여닫이문과는 달리 한 柱間에 2짝이상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혹은 2짝의 창호를 접어 열거나 들쇠에 달아올려서 개방해야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들 중 분합 들어열개문은 전통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창호로서 닫아두었을 경우에도 일부 창호를 개폐하여 여닫이문과 같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는 처마밑에 달려있는 들쇠에 전체 창호를 달아매어야 하는 불편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합 여닫이는 문

을 달아올리는 불편함이 없이 단지 2짝의 문을 한꺼번에 접어서 열기만 하면 全間의 개방이 이루어지는 창호이다. 따라서 분합 여단 이문이 분합 들어열개문에 비해 편리한 개폐 방법을 지녔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외부 를 향해 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창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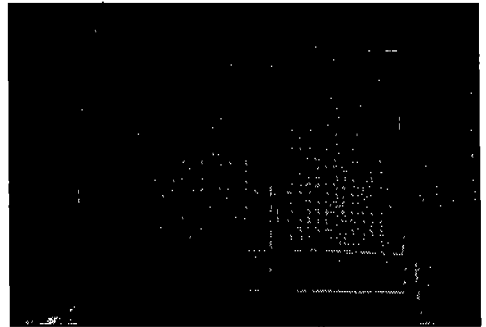
<표 1> 대상사찰 목록

사찰명	건립년대	소재지	비고
1 화암사 극락전	1605	전북 완주군	보물663호
2 위룡사 보광명전	17세기	전북 완주군	보물608호
3 범어사 대웅전	17세기	부산 금정구	보물434호
4 대곡사 대웅전	1605	경북 의성군	유형160호
5 대둔사 대웅전	1606	경북 구미시	유형162호
6 청곡사 대웅전	1612	경남 진주시	유형51호
7 개암사 대웅전	1640	전북 부안군	보물292호
8 적천사 대웅전	1664	경북 청도군	유형152호
9 승림사 보광전	17세기	전북 익산군	보물825호
10 장육사 대웅전	조선중기	경북 영덕군	유형138호
11 선운사 대웅전	17세기	전북 고창군	보물290호
12 온혜사 백룡암 극락전	1643	경북 영천군	보물790호
13 안심사 비로전	1613	충북 청원군	유형112호
14 용연사 극락전	1728	대구 달성군	유형266호
15 안정사 대웅전	1751	경남 통영시	유형80호
16 선암사 대웅전	1825	전남 순천시	유형41호
17 천황사 대웅전	조선후기	전북 진안군	유형17호

반면 들어열개 獨窓은 평상시 닫아 두었을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고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도 個別獨窓을 일일이 들쇠에 달아올려야 하기 때문에 위의 두 경우보다 외부환경에 대해 더욱 閉鎖의인 형태를 지녔으며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門보다는 窓형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들어열개 獨窓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몇몇 건축물³⁾에서 그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연대가 가장 오래된 全間 開放構造의 창호인 것으로 생각되고는 있으나, 당시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들어열개 독창의 형식은 17세기 이후 건물에서 보이는 조선시대의 獨窓과는 형태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

고 있다.⁴⁾ 즉 고려시대 들어열개 독창은 창 의 아래와 윗쪽에 머름이 있고 가운데에는



(그림 1) 고려시대 들어열개 獨窓 (부석사 무량수전)

설주가 서 있는 창호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개방한다 할지라도 머름과 설주로 인해 柱間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들어열개 독창보다 閉鎖度가 높을뿐 아니라 출입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들어열개 독창은 출입기능을 전혀 내포하지 않고 있어 출입기능이 배제된 순수한 창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간 개방형 구조의 창호일지라도 개폐의 방법과 창호틀의 형태에 따라 들어열개 독창이 가장 外部에 대해 폐쇄적이고, 다음으로는 분합 들어열개문과 분합 여단이 문의 순으로 점차 閉鎖度가 낮아져 開放指向의인 성향을 띄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Ⅲ. 全間開放 窓호형식의 改變推移

창호의 改變흔적이 남아있는 대상사찰 17개소 중 17세기에 건립된 사찰들이 13개소로 압도적인 數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18세기나 혹은 19세기의 건물들은 이에 비해 아주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수리와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창호의 형식도 자연스럽게 바뀔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불전에서 이루어지던 儀式

〈표 2〉 대상창호 총괄표 (분들:분합들문, 분여:분합여단이문, 들독창:들어열개 독창)

시기	순번	사찰명	건립년대	건물 규모	주간크기(cm)			창호1작의크기 (cm)		改變前 형식		改變後 형식	
					어간	협간	높이	어간	협간	어간	협간	어간	협간
17세기	1	화암사 극락전	1605	3*3	366	300	249	65*219	67*219	4분들	3들독창	4분들	3분들
	2	위봉사 보광명전	17세기	3*3	376	376	302	65*275	65*275	3분들	3들독창	3분들	3분들
	3	범어사 대웅전	17세기	3*3	454	350	253	85*224	79*224	4분들	3들독창	4분들	3분들
	4	대곡사 대웅전	1605	3*2	375	375	255	66*232	85*232	4분들	3들독창	4분들	3분들
	5	대둔사 대웅전	1606	3*3	330	295	224	81*202	71*202	3분들	3들독창	여단이	3분들
	6	청곡사 대웅전	1612	3*3	435	395	236	86*211	102*211	4분들	3들독창	4분여	3분여
	7	개암사 대웅전	1640	3*3	435	375	353	81*293	88*293	4분들	3분들	4분중 2작만 開門	3분중 1작만 의여단이
	8	적천사 대웅전	1664	3*3	345	345	227	64*205	88*205	3분들	3분들	4분여	3분여
	9	송림사 보광전	17세기	3*2	309	305	254	67*228	67*201	3분들	3분들	3분여	3분여
	10	장육사 대웅전	조선중기	3*3	320	295	250	71*205	61*205	3분들	3분들	3분여	3분여
	11	선운사 대웅전	17세기	5*3	524	413	310	85*273	85*273	4분여	3분여	4분여	兩開門
	12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1643	3*3	375	314	327	68*280	68*280	4분여	3분여	여단이	3분여
	13	안심사 비로전	1613	3*2	335	250	206	77*184	80*184	3분여	兩開門	兩開門	兩開門
18세기	14	용연사 극락전	1728	3*3	385	355	252	75*226	66*226	4분들	4분들	4분여	4분여
	15	안정사 대웅전	1751	3*3	305	300	285	58*204	70*204	4분들	3분들	4분들	兩開門
19세기	16	선암사 대웅전	1825	3*3	450	450	297	82*273	82*273	4분여문	4분여	4분여창	4분여
	17	천황사 대웅전	조선후기	3*3	500	380	312	90*281	117*281	4분들	외들독+ 의여단이	분들+ 분여	외들독+ 의여단이

집전의 형태나 信徒들의 수가 점차 변해감에 따라 창호의 형태도 이들에 맞추어 바뀌어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표-2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변된 17세기의 13개의 건물중 유독 협간의 창호가 들어열개 獨窓이거나, 분합들문을 가진 불전들의 수가 많아 분합 여단이문을 가진 불전들보다 개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개폐의 방법이 다소 불편하였던 들어열개 독창이나 분합들문이 후대로 오면서 점차 外部에 대해 開放의이고 편리한 개폐방법을 갖춘 창호형식으로 바뀌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창호의 개변추세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각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흐름을 추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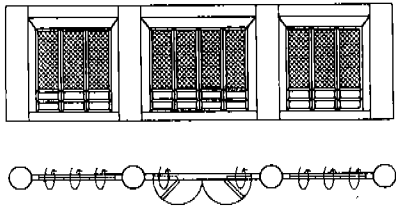
1.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형식

어간에 분합들문이 설치되고, 협간에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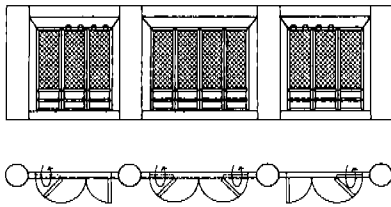
어열개 독창이 시설된 佛殿은 답사한 100여 개의 불전중 9개소가 파악되었는데, 이 중 6개(67%)의 건물에서 후대에 바뀐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창호의 改變率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건립당시부터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이들 건물들은 대개 어간이 넓고 협간이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간을 4분합들문으로 하고 협간은 3작의 들어열개 독창으로 창호를 구성하거나, 위봉사와 같이 어간과 협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간과 협간의 窓戶數를 동일하게 하여 어간 3분합들문, 협간 3작 들어열개 독창을 시설하였다 그러나 대곡사 대웅전은 어간과 협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간은 4분합들문으로 한 반면 협간은 문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까지 어간과는 다른 3작의 들어열개 독창을 시설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대둔사는 어간이 협간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어간과 협간의 문작수를 동일하게 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러나 전술한 불전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어간과는 다르게 협간만은 간살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3짝의 들어열개 독창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왜 하필 어간과 협간의 개폐방식을 서로 다르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시에는 이미 어간에 분합들문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협간에도 이와 동일하게 하여 손쉽게 창호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간을 들어열개 독창으로 하여 구별한 사실은 당시 불전으로의 출입을 어간으로만 하게 하였으며, 단지 협간은 필요할 경우 전체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창호가 필요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改變前)



(改變後)

(그림 2) 화암사 극락전 창호형식

한편 이들 중 화암사, 위봉사, 범어사, 대곡사 등 4개소의 건물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간의 4분합 들문은 그대로 둔 채 협간의 들어열개 독창만을 3분합들문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문짝의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간과 개폐방법을 동일하게 바꾸어 손쉽게 改替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문사는 어간의

3분합들문만 앞의 예와는 달리 각 각 안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개체하였을 뿐, 협간의 3짝 들어열개 독창은 전술한 예와 같이 3분합들문으로 개체한 경우가 되겠다. 따라서 6개의 대상 건물중 청곡사를 제외한 5개의 건물에서 협간 들어열개 독창이 분합들문의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改變樣相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곡사 대웅전은 어간의 4분합들문이 4분합 여닫이로 바뀌었고 협간의 들어열개 독창도 3분합 여닫이로 개체되어 前記한 사찰들과는 달리 어간과 협간 모두 분합 여닫이문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이 형식의 창호에서 나타나는 개변의 양상은 들어열개 독창이 설치된 협간만 후대에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개폐의 방법이 보다 쉬운 창호로 代替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간과 같은 형식의 분합들문으로 개체하였으며, 또한 全間의 개폐형식을 동일하게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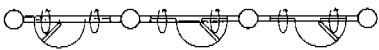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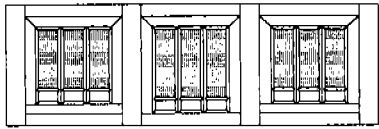
2.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

건립시부터 어간과 협간에 분합들문을 설치한 佛殿은 답사한 100개소의 사찰 중에 19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창호의 改變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곳은 17세기 건물 4개소와 18세기 건물 2개소 등 모두 6개소(32%)로 전항에서 분석한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형식의 改變率(6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변의 필요성이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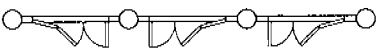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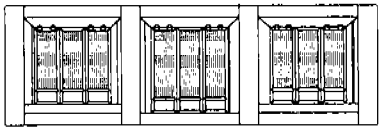
17세기에 건립된 4개소의 불전 중 개암사는 당시 협간보다 넓은 어간에만 4분합들문을 달고 협간에는 3분합들문을 설치한 반면 적천사와 승림사는 기둥의 간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간과 협간 모두 3분합들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장육사는 이와는 달리 어간이 협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서 간살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全間에 모두 동일한 3분합들문을 설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 전항의 창호형식과 마찬가지로 협간에는 간

살의 차이를 불구하고 3짝으로 된 창호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 4개소의 불전들에 있어서 창호 개추세를 살펴보면, 협간의 창호뿐만 아니라 어간의 창호도 함께 바뀌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前項에서 분석한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형식의 개변추세⁵⁾와는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 형식은 협간의 들어열개 독창만을 바꾸어 中間의 창호를 동일하게 하려 했던 추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보다 쉽게 여닫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여 전체창호의 개폐방법을 일괄적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改變前)



(改變後)

(그림 3) 송림사 보광명전 창호형식

이 중 개암사 대웅전은 어간과 협간 모두 양쪽 기둥에 접한문을 불박이로 처리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문만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 어간은 쌍여닫이, 협간은 외여닫이 형태로 變容한 사례이다. 이는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암사 대웅전의 창호높이가 293cm로 다른 佛殿들에 비해 높이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이를 분합 여닫이문으로 개체하여 개방할 경우 처질 우려가 있어 분합 여닫이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송림사와 장육사는 문짝의 數를 동일하게 두고 모두 분합 여닫이문으로 개폐의 방법만을 손쉽게 바꾸었으며, 적천사 대웅전은 당시 어간의 3분합 들문을 문짝의 수까지 바꾸어 4분합 여닫이로 개체한 경우이다.

이와같이 17세기의 4개소 불전중 개암사 대웅전만 문의 크기가 커서 분합 여닫이로 바꾸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면,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모두 후대에 분합 여닫이문 + 분합 여닫이문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건물로서 1728년에 건립된 용연사 극락전의 경우와 같이 어간과 협간에 설치되었던 4분합 들문이 모두 4분합 여닫이문으로 개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18세기까지도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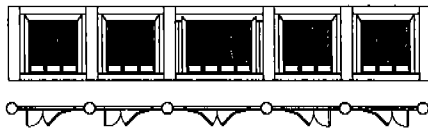
다만 1751년에 건립된 안정사 대웅전은 어간의 4분합들문은 그대로 두고 협간에 설치된 3분합들문만 쌍여닫이문으로 바뀌게 되어 이와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창호개변의 양상이 다소 전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3. 분합 여닫이문 + 분합 여닫이문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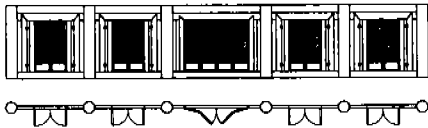
건립시 어간과 협간의 창호를 분합 여닫이로 구성한 사찰은 답사한 100개소의 사찰중 28개소가 파악되었는데, 이 중 개변의 흔적은 17세기 건물인 선운사 대웅전과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2곳과 18세기의 선암사 대웅전 등 3개소(11%)의 사찰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 전기 두형식 보다 더욱 개변율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선운사 대웅전은 현재 정면 5칸 중 어간에만 4분합 여닫이문이 설치되었고, 협간과 퇴간에는 밖으로 열리는 쌍여닫이문이 시설되어 있으나, 원래는 협간과 퇴간의 창호가 모두 3분합 여닫이문이었다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즉 후대로 오면서 협간과 퇴간 창호들의 좌우에 머름판을 설치하여 간살을 줄인 다음, 3짝의 문 중 1짝을 탈락시키고 쌍여단으로 개체한 경우이다. 이러한 선운사의 改替에는 전술한 경우와는 달리 개폐의 방법뿐만 아니라 창호의 수도 줄여서 바꾼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건립당시에 어간과 협간에 각각 4분합 여단과 3분합 여단이 설치되어 있



(改變前)



(改變後)

(그림 4) 선운사 대웅전 창호형식

있던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은 후대로 오면서 어간의 창호만 개폐방법을 바꾸어 각각 안으로 열리는 여단으로 개체하였는데, 선운사와는 달리 간살을 줄이지 않고 창호의 개폐 방법만을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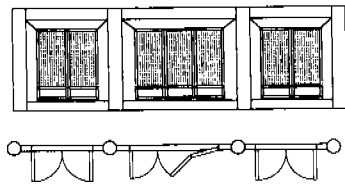
한편 비교적 건립시기가 늦은 19세기의 선암사는 간살이 같은 어간과 양협간에 각각 4분합 여단이 달려 있었으나, 어간만 개조한 예가 된다. 즉 어간의 柱間下部에 턱이 높은 머름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이 상부에다 4분합으로 된 여단이창으로 바꾸어 달았다. 어간에 설치된 문을 없애고 창으로 바꾼 예는 선암사가 유일한 예이다.

위에서 서술한 이들 불전들에 있어서 창호 개변의 공통점은 모두 분합 여단이문이 설치된 어간과 협간중 어느곳이든 1곳의 창호만 바꾸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형식을 가진 어간과 협간의 창호가 서로 다르게 개변되어 나감을 알 수 있고, 또한 분합 여단이문이 兩開門이나 여단이문 등으로 자유롭게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두형식의 불전들이 개변되면서 서로 동일한 형식을 지향하거나 혹은 어간과 협간의 창호가 동시에 개폐방법이 보다 쉬운 창호로 바뀌게 되는 양상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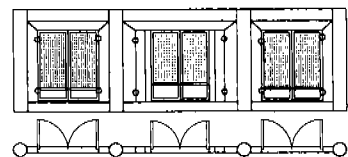
4. 기타형식

개변흔적이 남아있는 17개소의 불전중 건립 당시의 창호형식이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사찰은 안심사 비로전과 천황사 대웅전 2개소이다.

17세기에 건립된 안심사 비로전은 원래 어간에 3분합 여단이문이 시설되어 있었으며,



(改變前)



(改變後)

(그림 5) 안심사 비로전 창호형식

양협간에는 어간과는 다르게 밖으로 열리는 쌍여단이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대에 어간과 양협간의 창호가 모두 바뀌어 안으로 열리는 쌍여단이 문으로 개체되었다. 즉 어간의 창호는 창호들의 안쪽에 다시 부재를 덧대어 간살을 줄인 다음 안으로 열리는 여단이문으로 개체하였으며, 협간은 창호의 개폐방향만을 바꾸어 안으로 열리게 하여 전체간의 창호형식을 동일하게 하였다.

반면 19세기에 건립된 천황사 대웅전은 어간의 분합들문만 부분적으로 개체한 예가 된다. 즉 건립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어간의 4 분합들문 중 오른쪽 2짝의 문만 개폐방법을 바꾸어 분합 여단이로 변형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간이 2짝의 들어열개문과 2짝의 분합 여단이문으로 구성되어 이전에는 그 예를 찾아보지 못한 특이한 모습의 창호가 구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안심사 비로전과 천황사 대웅전의 경우는 창호개변의 전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상의 간편함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개체되어 가는 조선후기 창호개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종합고찰 및 結論

창호가 바뀐흔적이 있는 17개소의 佛殿들을 대상으로 全間開放形 창호의 改變樣相을 추적하여 다음의 표-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이들 중 건립 당시의 창호형식이 후대에 개변된 비율을 살펴보면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 형식의 비율(67%)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분합들문 + 분합들문(32%) 그리고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11%)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외부에 대해 폐쇄도가 높은 창호들의 개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불전의 형태가 점차 외부로 향해 개방성을 띄어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은 대개 협간의 독창이 어간과 같은 형태의 분합들문으로 바뀌어 全間的 창호가 동일한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으로 개체되어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어간으로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던 17세기의 불전

<표 3> 全間개방 형식 창호의 개변추이

형식 시기	분합들문+들어열개 독창 형식	분합들문+ 분합들문 형식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	기타 형식	기타 형식
17세기	화암사 극락전	—————> ●			
	위봉사 보광명전	—————> ●			
	범어사 대웅전	—————> ●			
	대곡사 대웅전	—————> ●			
	대문사 대웅전	—————	—————	—————	—————> ●
	청곡사 대웅전	—————	—————	—————> ●	
		개암사 대웅전	—————	—————	—————> ●
		적천사 대웅전	—————> ●		
		송림사 보광전	—————> ●		
		장육사 대웅전	—————> ●		
18세기			선문사 대웅전	—————> ●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 ●	
19세기				안심사 비로전	—————> ●
			선암사 대웅전	—————> ●	
			천황사 대웅전	—————> ●	

들이 후대로 오면서 개방화 되고 全間으로의 출입을 위해서 협간의 창호만을 손쉽게 개제 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협간뿐만 아니라 어간의 창호도 함께 개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즉 어간과 협간에 설치된 분합들문 모두가 개폐가 보다 용이한 분합 여닫이문으로 한꺼번에 개제되어 외부에 대해서 더욱 개방성을 지향하도록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 형식과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보다 손쉬운 개폐방법을 추구하면서 全間을 동일한 형식의 창호로 구성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분합 여닫이문 + 분합 여닫이문 형식은 어간이나 협간중 한곳의 창호만이 여닫이문이나 兩開門, 혹은 분합 여닫이창 등 다양하게 개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불전이 용에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창호를 바꾸어 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안심사 비로전과 천황사 대웅전의 경우도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개변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국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 형식과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을 제외하고는 창호개변의 일정한 典型性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

- 1) 復元은 창호틀에 남아있는 돌쩌귀자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 2) 이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拙稿인 “韓國寺刹佛殿의 正面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建築歷史研究 제 11호, 1997년, 28-29쪽)를 참고 바람.
- 3)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아산의 맹씨행단 등에서 그 遺構를 찾아볼 수 있다.
- 4) 본 연구에서 분석된 들어열개 독창은 17세기 이후에 보이는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 5)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 형식 6개소 중 4개소는 협간의 창호만 개변되고 나머지 2개소는 어간과 협간이 모두 개변된 추세를 전항에서 볼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 1) 金一鎭, 韓國建築의 櫺雙窓에 관한 연구, 東國大 博士學位 論文, 1988
- 2) 鄭明燮, 朝鮮時代 鄉校 및 書院建築의 廳房間 開口部 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 嶺南大 博士學位 論文, 1992.
- 3) 鄭明燮, 傳統建築의 들어열개 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7권 제2호, 1996.
- 4) 郭東曄·金一鎭, 韓國 寺刹佛殿의 正面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 11호, 1997.
- 5) 郭東曄·金一鎭, 佛殿背面 窓戶形式의 時代別 特性 및 變遷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 12호, 1997

